

종단 소식

조계종

교육원 학술논문 공모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는 3월말까지 '근대승가교육사'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공모한다.

월정사 복지시설에 성금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18일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원주·강릉시립복지원, 소백재 마을을 비롯 관내 노인복지회 등 11개 단체를 방문 성금과 백미, 위문품을 각각 전달했다.

봉선사 간월암서 방생법회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원)는 2월8일 충남 서산 간월암 일대에서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독거노인 20명에 백미

총무원(원장 인곡)은 16일 성북2동 독거노인 20명을 방문 불우이웃돕기행사를 실시했다.



부들은 이날 노인들에게 1인당 1가마씩의 쌀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충남교구 총무원 주지총회

충남교구총무원(원장 대연)은 15일 아산 산수회관에서 교구산하 주지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또 현재 건강상 이유로 총무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연스님(아산 영인사 주지)을 대신해 총무원 부위원장인 만성스님(아산 수암사 주지)과 일로스님(천안 천

왕사 주지)이 총무원직임을 대행하기로 결의했다.

부산교구 주지·교임연수

부산교구총무원(원장 상도)은 15일 경남 양산 광천사에서 부산교구신하 각 사암 주지사님 및 교임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 참석자들은 승풍기강 확립, 승려 수행능력 증진, 신도교육 강화, 총무원정 책신 등 종단 신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협조코로 의견을 모았다.

전태종

말사·신행단체 본사 참배

총무원(원장 운덕)은 무인년 정초를 맞아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종단 신행단체와 전국 각 말사별로 총본사 단양 구인사 참배를 실시한다.

신행단체별 신년하례회와 말사신도들의 중정 도용스님 친견법회를 겸한 이번 본사참배는 전국에서 30만명의 신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진각종

해병대에 세탁기등 전달



성초 통리원장은 15일 통리원장실에서 해병대 제9258부대 흑룡사 군법사에게 컴퓨터와 세탁기 각 1대씩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 재선출



중앙종회(의장 법륜)는 15일 충남 천안 보명사에서 제35차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제7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 흥파스님을 재선출했다.

이에 따라 흥파스님은 81년 4대 총무원장에 오른 이래 4대째 연임하게 됐다.

설맞이 이웃돕기 자비행 '밀물'

신흥사 무연고사 합동차레 지내

직지사 모자가정에 백미 전달

중리복지관 소년가정에 떡국·의류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떡국코시, 무연고 합동차레 지내주기, 의류전달 등 교계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는 설날 신중기도와 함께 명부전에 마련된 합동차레에 제를 올려준다. 특히 무연고자나 후손없는 친척의 영가 천도, 영구위패 봉안과 불자가족들이 직접 사찰을 찾아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천도하는 차례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28일 불우이웃들에게 떡국보시를 하기로 했으며 춘천 석왕사(주지 백운)는 31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위문법회와 다과회를 열어 비행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심어줄 계획이다.

강릉자비원(이사장 부동)도 15일부터 27일까지 '자비원 후원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을 자비원생들의 후원금으로 쓰게 되는 이번 바자회는 생필품, 젓갈류 쌀 한과 견과류 등을 시중가보다 10~15%정도 저렴하게 판매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예아서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22일 김천시 대항면내 장기외방자, 모자가정등 불우이웃 15세대에 백미40kg씩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북조·보광사주지)는 19일 다가동 유길운 할머니(75)를 비롯 관내 불우 가정 26가구를 방문, 백미와 성품을 전달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도 23일 지역내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방문, 가래떡과 의류 60여점을 전달했으며, 26일에는 장수식당에서 노인 2백여명에게 만두국을 공양했다.

한편 속초 신흥사 신도회장 윤두욱씨(신흥사 대표소장)를 비롯 신흥사 대표소 임직원들은 24일 틈틈이 모아온 보시금으로 관내 불우노인을 초청, 점심공양을 배풀었다.

이밖에도 각 사찰과 사암연합회 등 단체들은 설을 전후해 지역내 불우이웃과 이웃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김종근 기자

제2 석굴암 건설 구체화

토함산 구릉지에 부지선정...2000년 완공

경주 불국사(주지 실조)가 제2석굴암 조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불국사측은 2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국보24호)의 모조상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경주시에 신축예정지에 대한 현상변경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제2석굴암의 위치는 기존 석굴암의 남쪽 요소체열 구릉지로, 총 1백59억여원을 들여 3월에 착공해 2000년경에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불국사측이 지난 2년동안 한국미술품연구소와 등국대불교미술연구소에 제2석굴암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불국사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내부통제로 석굴내부 참배가 어려웠던 현실에서 기존의 석굴암을 보존하는 한편 제2석굴암을 완전개방해 예불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석굴암과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제2석굴암 조성 예정지가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문화재관리국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팔공산 주차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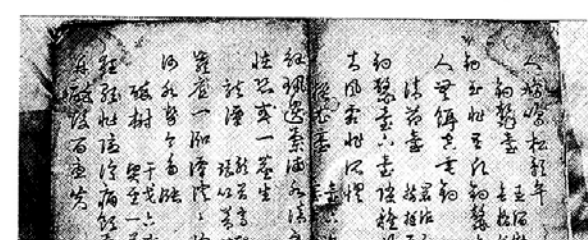
자연경관 훼손 우려

도립공원 팔공산 수태골 입구에 대형 주차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사무소는 동구 용수동 906 907-1, 908-4, 909-2 일대 입야와 등 1천4백여평에 유료주차장 건립을 위한 중원계획 시설결정 요청서를 지난해 10월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공원과과의 관계자는 "수태골에는 1백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영 유료주차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청에는 평일 1백50여대, 휴일 5백여대가 몰려 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혼잡을 빚고 있어 시설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로 이어지는 팔공산 순환도로변에 위치한다. 주변경관이 수려해 대형주차장이 건설될 경우 자연경관 훼손이 확실시 된다.



사명대사 친필작성문집 <용담선생유목>

사명대사 친필문집 발견

김재학씨 '용담선생...' 공개...호·낙관등 적혀

사명대사가 친필로 작성한 문집 <용담선생 유목>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문서전문가 김재학씨(말양사박물관 연구원)는 충청남도 대흥사 소장하고 있는 대사의 친필문집 <용담선생 유목>을 최근 확인해 본 결과 진본임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책의 맨 앞에 '용담집을 쓰다'란 문구와 함께 사명대사의 낙관이 있으며, 끝에 '만력경자년(1660) 만추송운일서'라는

추가비용 1백억 불가피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MF한과 영향으로 현재 건립중인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건립비용이 최소 1백억원 이상 추가될 전망이다.

중앙승가대 최일환 차장은 21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상승해 김포학사 건립에 1백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해 중앙승가대측과 회사간의 공식적인 접촉이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측 역시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다"며 "만약 공립사업이 추가부담을 요청할 경우 종단과 긴밀히 협조해 방점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강정사는 1인1수행법 갖기 운동으로 도심포교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도심포교 새지평 연다

광명 '금강정사' 청사진 마련

1인1수행법 갖기·노인복지원 개원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백인)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내놓은 포교복안이다. 이를위해 금강정사는 올해부터 1인1수행법갖기 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포교를 비롯 각종 포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금강정사의 1인1수행법갖기 실천지침은 경전읽기, 계율지킴이, 염불, 보살행, 참선수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가불자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도심포교당의 포교활동 한계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포교전략이란 게 사찰측의 얘기다.

금강정사는 재가불자수행을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95년부터 일부 신도들을 대상으로 경전읽기, 참선수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신도들의 반응이 포교에 큰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정사는 수행활동지침서인 <재가불자수행법>을 발간하는 한편 각

부문별 교육과정도 개설해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참선수행의 경우 6개월 과정 입문반, 수련반을 개설하고, 계율지킴이는 재가불자 관련 계율교육을 정리 제공한다는 것.

주지 백인스님은 "기복적인 신앙형태가 아닌 교육과 수행,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 정체인 포교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정사는 올해를 노인포교의 원년으로 삼아 방과후포교에 나선다. 이는 광명시 소하동에 건립중인 금강복지원(가칭) 운영을 위한 기초단계다. 하안동일대 독거노인및 불우노인 시설 현황을 상반기내로 파악하고 '노인의 집'을 개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정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행을 통한 포교활동과 각종 포교활동은 향후 도심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근>

Advertisement for Buddhist books and events. Title: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Features: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범구경' (上下), '금강경', '판차란트라', '부처님의유언', '란트라비전' (I II III IV). Includes author names like Osho Rajneesh and descriptions of the books' content.